



머리는 희지만 마음은 늙지 않는다고  
옛 사람 일찍이 말했거니  
닭 우는 소리 듣는 참나  
장부의 할 일 다 마쳤네.

髮白非心白  
古人曾瀟洩  
今聽一聲鷄  
丈夫能事畢

“차라리 평생 바보가 될지언정 다시 문자법사는 되지 않겠다”며 용맹 정진 중이던 휴정 스님(서산대사이) 23세 되던 해 역성존을 지나다 닭이 해를 치며 우는 소리를 듣고 환연히 마음자리를 깨닫고 지은 오도송이다. 어둠을 몰아내고 광명을 부르는 닭은 선가(禪家)에서 깨침의 이미지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백암록> 제16칙에는 졸탁동시(誦啄同時) 이야기가 등장한다. 졸탁동시란 병아리가 나올 때가 돼서 안에서 쪼아대고, 밖에서 어미닭도 함께 쪼아줄 때 껍질이 깨지고 병아리가 살아나올 수 있음을 뜻하는 말.

어느 수행자가 경청 스님(鏡淸, 868-936)에게 말했다. “저는 껍질을 깨고 나가려는 병아리와 같습니다. 화상께서 밖에서 껍질을 깨뜨려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살아나올 수 있겠는가.” “제가 살아나지 못한다면 스님께서는 비웃음을 살 것입니다.” 이를 들은 경청 스님은 “역시 명칭한 놈이구나”라고 꾸짖었다.

### ‘졸탁동시’ 선가(禪家)서는 깨달음에 비유 “마음 공부는 마치 닭이 알 품는 것과 같이”

졸탁동시는 인연이 성숙했을 때 자연스레 이뤄지는 것이지만 병아리가 재촉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너무 일찍 나오게 되면 병아리는 죽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깨달음을 향해 정진하는 수행자를 알을 깨고 나오려는 병아리에, 이를 도와주는 스승을 어미닭에 비유한 것이 적확하기 이를 데 없다.

어미닭이 알을 품을 때의 지극한 정성과 인내는 마음 행감의 자세를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된다. <선가귀감>은 “참구하는 공안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하기를 마치 닭이 알을 품는 것과 같이”하면 “반드시 깨닫는다”고 적고 있다.

닭은 예로부터 인간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었던 만큼 부처님 전생 이야기를 담은 <본생경>에도 빠지지 않는다. 어느 도시에 수행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수탉 소리를 듣고 아침에 일어나곤 했다. 어느 날 수탉이 죽자 이들은 기상 시간을 지키지 못했고, 스승의 꾸지람을 들었다. 그래서 묘지 숲에서 닭 한 마리를 데려다 길렀다.

하지만 한밤중에 장사지내는 불빛 때문에 밤과 낮을 구별하지 못했던 이 닭은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댔고 결국 ‘퇴출’ 되고 말았다.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준다.

닭에 얽힌 이야기는 천불천탑의 전설이 서린 운주사에도 전해진다. 우리나라 지형을 배의 형상으로 생각한 도선 스님은 동쪽에 산이 많아 그냥 놔두면 일본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걱정이 들었다. 그래서 신통력으로 천상의 석공을 불러 배 형상의 구멍점인 화순에 천개의 석탑과 석불을 조성했다.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려 하면 신통력으로 다시 해를 잡아 당겨 작

## 꼬끼오~~ 깨침의 한해를

입을 계속 했다. 그런데 동자승 하나가 밤새 계속된 일에 지쳐 숨어서 닭 우는 소리를 냈고, 순간 석공들은 마지막 석불을 세우지 않은 채 아침이 온 줄 알고 하늘로 올라가버렸다. 그래서 운주사의 외불 한 쌍은 누워 있게 됐다는 것이다. 만약 거짓 닭 울음소리가 아니었다면 어찌 됐을까.

박익순 기자

### ■ 전통문화 속의 닭

꼬끼오, 우렁찬 닭 울음소리에 깜짝 놀란 햇님이 기지개를 펴면 온 세상은 광명으로 밝혀진다. 그래서일까? 우리네 설화나 전설을 듣다보면 잡귀들이 결정적으로 완기를 해보려고 하는 순간 닭 울음소리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우리 선조들은 닭을 벽사초복(辟邪招福·사악함을 물리치고 복을 부름)의 기쁨으로 귀중히 여겨 정초에 대문이나 집 안에 닭 그림을 붙여 놓고 새해를 축하하고 행운을 기원했다. 닭은 또 12지신 중 유일하게 날개 달린 동물로 지상과 천상을 연결하던 전령으로 여겼다. 수탉의 빛은 예부터 벽사를 상징한 붉은 색이어서 숭상했으며, 암닭은 왕성한 다산성 때문에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특히 사랑받았다.

### 정초 닭 그림 붙이고 새해 축하 ‘벽사초복’ 다산·관직·재물 등 상징, 보현보살로 표현

그 옛날 자명종이 없을 때 수탉은 우리에게 시간을 알려줬다. 암닭은 알을 낳고 부화시켜 병아리를 생산해 우리네 살림살이에 큰 도움을 줬다. 이 뿐만이 아니다. 혼례를 치를 때도 닭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푸른 천에 싸인 수탉은 희망찬 출발의 의미로 푸른 천에 싸인 암닭은 다산을 의미했다.

이런 이미지 탓인지 조상들은 닭 꿈을 길몽으로 여겼다. 꿈속에서 닭은 관직, 재물, 훌륭한 인재 등을 상징한다. 훌륭한 인재 중에는 닭 꿈을 태몽으로 갖고 있는 이들이 많다. 행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권을 장군, 작곡가 흥난과, 서경덕 등이 그에 해당한다. 심지어 중 열번째인 닭은 방랑으로서는 서쪽을 나타내는 방위신이며 불교에서는 보현보살로 표현되기도 한다.

노병철 기자 sasim@buddhapia.com



통도사 십이자변(十二支權) 중 ‘닭(酉)’. 절에서 큰 행사를 할 때 잡귀의 침범을 막기 위해 내걸었다. (1896년작)

### ■ 을유년(乙酉年) 불교사

#### 의상 대사 탄생·무학 대사 입적

- ▶ 385년(백제 침류왕 2년): 2월 한산(漢山)에 절을 세우고 10인을 출가시킴
- ▶ 565년(신라 진흥왕 26년): 진(陳)나라 입학승 명관이 경론 1,700여권을 신라에 들여옴
- ▶ 625년(신라 진평왕 47년): 신라 의상대사 출생, 5월 고구려 고승 혜관(惠灌)이 일본에 건너가 삼론(三論)을 강설하고 비(雨)오기를 기원함
- ▶ 685년(신라 신문왕 6년): 3월 봉선사 창건, 4월 봉덕사 창건
- ▶ 829년(신라 흥덕왕 4년): 증각대사(證覺大師) 홍척(洪陟)의 실상사 창건
- ▶ 865년(신라 경문왕 5년): 화엄대덕(華嚴大德) 결언(決言)이 해인사에서 5일간 경을 강의, 1월 도피안사 철조 불상 주성(鑄成)
- ▶ 985년(고려 성종 4년): 10월 집을 버리고 절로 만드는 것을 금지
- ▶ 1105년(고려): 12월 현화사 덕창(德昌)을 왕사(王師)로 삼음
- ▶ 1225년(고려 고종 12년): 9월 17일 건원사 준공, 10월 19일 궁정에서 승려 3만을 공양, 12월 최충이 왕륜사를 수리케 함
- ▶ 1405년(조선 태종 5년): 3월 사간원(司諫院), 담선회(談禪會)의 폐지를 왕에게 건의하였으나 이를 수락하지 않음, 8월 절을 없애고 토지와 노비를 관공(官公)에 귀속시킴, 9월 11일 무학대사 금강산 금강사에서 입적
- ▶ 1465년(조선 세조 11년): 2월 오대산 상원사 중수에 착수, 4월 7일 원각사 준공을 경축해 승려 2만을 공양함, 3월 4일 간경도감에서 <원각경언해> 10권을 조판(雕板) 간행
- ▶ 1765년(조선 영조 41년): 6월 10일 낙암사신(洛庵思信) 입적
- ▶ 1885년(조선 고종 22년): 10월 21일 해암 최현문 출생, 12월 수성근현(壽星謹憲) 및 원암득민(圓菴得民) 입적
- ▶ 1945년: 8월 18일 조선불교혁신분비대회결성, 8월 20일 전국승려대회 준비위원회 설립, 9월 22-23일 사찰령 및 태고사법 폐지, 조선불교교헌 제정, 조선불교중앙총무원 조직, 각 도교무원 설치, 교구제(13교구) 실시 등 결의, 10월 9일 군정법령에서 신앙을 이유로 차별을 발생케 하는 조령 및 명령은 전부 폐지 규정, 11월 31 본말사에 광복사업협조비 1억 8천749만원 배당, 12월 26일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창립, 12월 종교연합회 신탁동지 반대시위, 불교청년당 결성으로 교도제 실시요구, 독립 축성을 목표로 5대종교연합회결성, 조선 불교 중앙총무원 총회 개최, 전쟁동포 구제 및 정치활동을 목표로 조선불교청년동맹 삼일당(三一黨) 결성.

##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우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 사암침술 강좌

- ▶ 과정: 초급, 고급
- ▶ 내용: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정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법, 오행차명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비교정법, 임상실습
- ▶ 개강: 2005. 1. 3. (주·야간반) 3개월 완성)
- ※ 침술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있으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매주 주말반 수시접수

**정통명리강좌    정통풍수강좌**

## 사암침술 학회

장소: 종로 3가 지하철 12번 출구 옆 화암빌딩 402호  
문의: (02) 2267-9136. 011-307-2975

## 신비의 침술 대공개

만성두통, 견항통, 어깨결림, 구안와사, 이명, 해수천식, 아토피피부병, 요통, 좌골신경통(디스크), 척추추만증, 다리저림, 무릎관절통, 치질, 만성체증 등 비결침술로 단 3회 시술 완치시키는 비방(한국, 중국, 일본, 몽고 등 대침술가에게 30여년 동안 공부한) 비법을 공개함.

※ **중풍, 소아마비, 간경화, 각종 암 등은 별도 상담.**

### 비법 강좌

※ **선착순 10명, 숙식제공**

- 일 시: 1월 8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 1월 9일 일요일까지 교육
- 보시금: 50만원
- **충남 공주시 우성면 용봉리 천제 불국사 의성스님**
- 오시는 길: 공주시에서 청양가는 길 13km 오셔서 공수원 3거리 하차

초보자 누구나도 7시간만 배우면 전문의가 될 수 있다.

전화 016-663-2159, 041-855-7114

### (주)야단법석과 함께 할... 모십니다

- 수익사업을 생각하는 사람
- 기금 마련을 하고자 하는 신도회 불교단체
- 신행생활을 하면서 직장을 갖고자 하는 불자

#### 야단법석은...

- 문수사업부 - 행사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봉축행사, 산사음악회 기획 연출
- 보현사업부 - 다음 생을 위한 범회, 사십구재보현  
 스님은 다비와 사십구재, 신도는 시다림과 사십구재
- 관음사업부 - 범회때마다 음향때문에 고생하셨다면.....  
 범당전용스피커 v-818
- 지장사업부 - 대비는 스님의 마지막 法門입니다.  
 충남 금산 서대산 일불사 지정 다비장 운영

야단법석 문의: 050-5244-0108

### “범회때마다 음향 때문에 고생하셨다면...”

사찰에 설치된 음향이 대부분 단순히 확성기능의 음향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저렴한 가격에 스님의 법문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음향 시스템을 갖추십시오.

기존의 음향 시스템에서 스피커전 하나만 교체 하여도 음질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무료로 점검 및 음향 설계에 드립니다.**

#### 음향기기 사용 및 관리방법

1. 날마다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아도 고장난다.
2. 랙(RACK)에 보관 하며 한달에 1회 이상 청소한다. 음향 기기도 애정을 갖는 만큼 성능을 발휘한다.
3. 일정온도가 유지 되는곳에 설치한다. 너무 습거나 너무 건조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4. 관리자를 두며 사용 전에 미리 점검한다. 날씨와 직박에 따라 셋팅하여야 한다.
5. 3년 정도 사용하면 소모품을 교체한다. (마이크, 스피커선, 마이크선, 연결잭 등)
6. 스피커 및 앰프 추가시 전문가 상담한다. 저항 및 출력률 계산하지 않고 연결하면 고장의 원인이 된다.
7. 사용 후 볼륨을 다 줄인 후 전원을 차단한다. 그냥 전원을 차단하면 스피커에 무리를 준다.

야단법석 문의: 050-5844-0108

**사원모집** (주)야단법석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불법에 대한 신심을 더 중요시하는 회사입니다. 신행생활을 하면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원하시면 야단법석과 함께 하십시오.

- 모집구분: 지점장 - 남 0명, 여 0명. 사원 - 남 0명, 여 0명
- 근무처: 본인 거주지
- 문의: 050-5244-0108